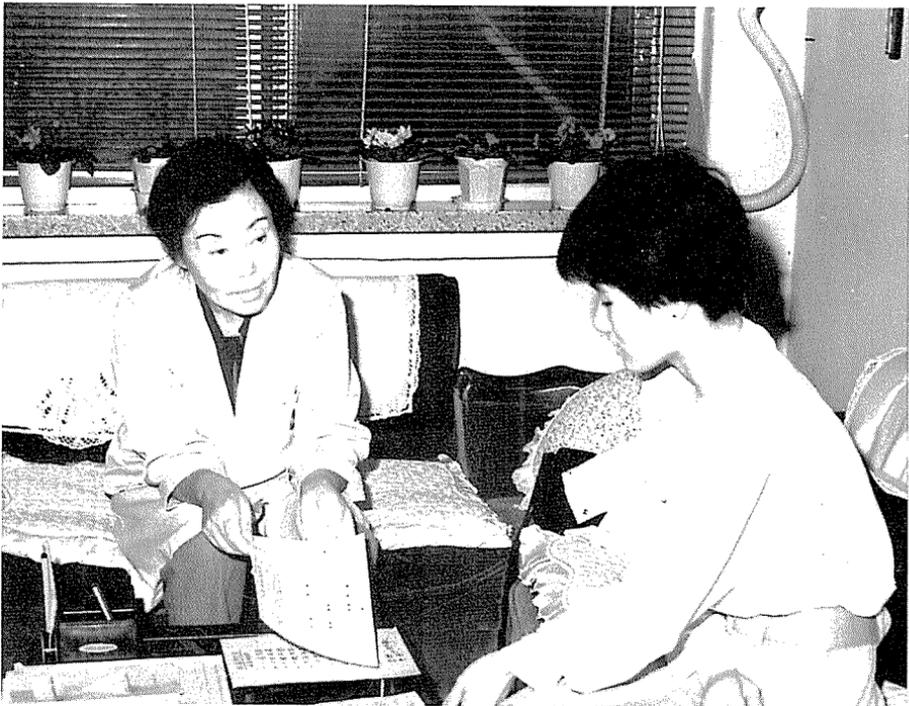


## “여성건강관리 정착에 새로운 장을 열겠습니다”

- 健協 대전·충남지부 여성건강상담소를 찾아서

지난 4월1일, 건협대전·충남지부에 설치된 여성건강상담소는 매주 2회(수, 금)씩 여성건강증진을 위한 건강검진을 실시해 오고 있다.

한국여의사회 대전·충남지회 강군옥 원장을 비롯한 여의사회원들의 협조 하에 대전·충남지역 거주 여성건강관리 정착에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 상담소를 찾아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봤다.



## 여성 건강관리에 관심 필요

건협 대전·충남지부의 여성건강상담소가 설치되기까지는 이미 '84년도부터의 한국여의사회 대전충남 지회의 노력이 있었다.

『아이들이나 남편의 건강에 대한 관심은 매우 큰 편이지만,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주부의 건강은 사실상 외면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이러한 현상은 저소득층일 수록 더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성건강상담소를 설치하게 된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소홀하기 쉬운 여성들의 건강관리를 올바르게 지도하고, 여성에게 있어 특히 문제가 되는 자궁암 등을 초기에 발견해 치료할 수 있도록 관리·유도하는 것이죠.』 여의사회 대전, 충남지회장이며, 본회 대전·충남지부 부속의원장인 강군옥씨의 얘기다.

## '84년이후 6,700여명 검사

이 여성건강상담소는 그동안 대전충남지역의 많은 여성들의 건강검사와 상담을 실시해왔다.

『'88년도 한해동안 1,700여명의 여성에 대한 자궁암검사를 무료로 실시했고 이상 소견자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84년 이후 총 6,700여명이 이곳을 다녀갔죠.』

이 여성건강상담소는 대전역 지하에 설치되어 매주 월요일마다 상담과 진료를 실시했고 여의사회 회원들의 협조 하에서 치료가 이루어져 왔다.

## 건협상담소 개설, 수·금요일 상담실시

이처럼 여성 건강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해나가고 있는 여성건강상담소를 건협에도 설치하게 된 이유를 그들은 이렇게 설명한다.

『건강관리협회의 목적 자체가 국민건강관리 정착이러는데 있고, 특히 여성 건강에 있어 최대의 관심사라고 할 수 있는 자궁암검사가 잘 이루어지고 있어 여성건강관리 정착에 완전을 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동안은 주 1회 밖에 하지 못했던 상담을 건협의 공간과 시설, 인력을 활용함으로써 더 자주 상담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협의 여성건강상담소는 매주 수요일, 금요일에 개소되어 강군옥 원장을 중심으로 상담과 검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다.

## 국민건강관리 위한 관련기관 연계 사업에 좋은 모범 남기기도

이 여성건강상담소를 통해 건강검사를 하고 자궁암을 발견했던 양은자씨(48세), 홍화식씨 등은, 『평소 아무런 증상이 없어 나름대로는 꽤나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우연한 기회에 이 상담소의 도움으로 검사를 해 자궁암을 발견했습니다. 주위의 여러분의 도움으로 현재는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고 입을 모은다.

특히 양은자씨의 경우는 자궁암인 것을 알고도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치료를 하지 못한 채 살다가 추적 관리를 하던 여성건강 상담소의 주선으로 충남도 보건사회국 가정복지과위 도움을 받아 수술을 받고 건강을 되찾아, 여성건강관리를 위한 각계의 연계 사업에 좋은 모범이 되기도 했다.

### 여성 건강검사 제도화 필요

한편 그동안 상담소를 운영하면서 얻은 결과와 건협외 자궁암검사 결과를 토대로 여성건강 실태를 분석했던 강군옥원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자궁경부암의 발생 빈도는 모든 여성암의 27.8%나 차지하고 있어 그 관리가 매우 중요함을 지적했다.

『84.9월부터 '88.12월 사이의 대전·충남지역 여성자궁암검사 6,727건을 토대로 분석을 한 결과, 자궁경부암(ClassⅢ기준)의 발병률은 약0.7%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결과는 전국 평균치인 0.4%보다 높기 때문에 앞으로 좀더 적극적인 추적관리의 필요성을 제기해 주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농어촌지역으로 갈 수록 그 발생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어촌지역 주부들이 건강검사를 받을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데에서 오는 결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농어촌지역과 영세민에 대한 검사가 제도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잊어버리기 쉬운  
여성 건강관리를  
책임질 것이라는  
여성건강상담소에  
거는 기대는 매우 크다.



의사는 병이 낫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할뿐이며 모든 것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는 강군옥원장

### 앞으로는 여성건강 전반에 관한 검시로 확대

이처럼 여성건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진 강원장은 앞으로는 자궁암 뿐만 아니라 여성 건강 전반에 관한 검사까지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건강한 아기의 출산을 위한 임신부에 대한 혈액관련검사 등을 실시하는 한편 영세민 무료 검사가 확고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여성건강상담소를 과학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굳은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 국민으로부터의 신뢰성 확보에 주력을

현재 63세의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사회 봉사에 어떤 젊은 사람보다도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그녀는 혈액원장을 지낸 바가 있으며 지난해 2월에 본회부속의원장이 되면서 대전·충남지역 주민 건강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일꾼이다.

『모든 것은 자연으로부터 이루어지고 정성으로부터 결실을 보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사는 병을 치료한다기 보다는 낫는 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아야 옳겠죠.』라는 강원장은 또, 『건협은 국민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역할을 좀더 올바르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보건계몽사업을 최대화하고 정도관리에 신중을 기함으로써 신뢰성을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라고 강조하기도 해 국민건강관리에 거는 그녀의 관심과 기대가 실로 다대하다는 것을 느끼게 했다.

이제 개소한지 불과 한달남짓한 시간이 흘렀지만 자칫 잊어버리기 쉬운 여성의 건강을 책임질 것이라는 여성건강상담소에 거는 기대는 매우 클 것이라고 생각되며 상담소의 원활한 운영에 건협 대전·충남지부가 많은 도움을 주기를 바란다.